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이  
출애굽을 이끈  
미리암

(출애굽기 1:1~2:15,  
13:20~15:21)

친구 여러분! 바구니에 싣려 강물에 떠내려가  
살아난 아기 모세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모세를 있게 만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수백 년이 지나고, 요셉을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수백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불안해진 파라오는 말도 안 되는  
아주~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렸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모두 나일 강 속에 던져버려라. 저들의 자손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다!”**

끝도 없이 펼쳐진 나일 강  
그 속에 우글거리는 악어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그 무시무시한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시간이었죠.

**“응애! 응애!”**

그리고 그 끔찍한 때에, ‘모세’라는  
이스라엘 아기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애써 모세를 세 달 동안  
숨겨서 키워봤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자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흑흑흑... 우리 아가 모세야...  
저 잔인한 이집트인들의 손에  
너를 죽게 할 순 없단다...  
차라리, 강물을 타고 멀리 멀리 떠나버리렴...  
꼭 살아남아야 한다...”**

요게벳은 파피루스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바구니 안에 모세를 넣어, 강물에 흘려보냈어요.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너무나도 걱정돼서  
강가를 따라 바구니를 계속 쫓아갔죠.

얼마쯤 갔을까, 화려한 옷을 입고 강가에 나온  
여인이 모세가 있는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그 여인은 바로~!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응애! 응애!”

“어쩍...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딱하기도 하지.  
이 아기를 누가 죽게 내버려둘 수 있겠니..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바로 이 때! 미리암은 쏜살같이  
공주님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공..공주님! 젖도 잘 먹이고 아기도 잘 보는  
유모 한 명을 제가 잘 아는데, 소..소개해드릴까요?”

“어머, 이게 웬 일이니~  
그래, 그럼 한 번 데리고 와 보렴”

미리암은 빛의 속도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나랑 가야해요, 빨리요!”**

**누나 미리암과 엄마는 단숨에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해서~ 엄마는 유모가 되었고  
자신의 아기, 모세를  
왕궁에서 직접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 미리암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발바른 행동 덕분에 아기 모세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천대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의  
시작입니다.

80년 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시작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이집트 탈출  
출애굽을 허락하셨죠!

천대받던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꿈을 안고 '홍해'라는 바다에 다다랐는데요~

바로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다급한 소리로 외쳤어요!  
“파라오다!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온다!!!”

정말이었어요!  
파라오가 엄청난 수의 군대들을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우리 밑에서 종노릇이나 하던 이스라엘 녀석들을  
보내주다니... 녀석들을 한 놈도 바바짐없이  
잡아와야 한다! 이랴! 이랴!”**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요. 어차피 죽을 거면  
이집트 땅에서 죽으면 됐을 것을  
모세 당신은, 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요?”**

하지만 모세는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대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만 믿고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 군대와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 바다를 가리켰더니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닷물은  
계속 밀려가 거대한 벽처럼 양 옆에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마른 길이 드러났어요!**

**“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릴 위해 바다에 길을 열어 주셨어요!”**

조금 전까지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그 마른 길을 통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파라오의 군대들도 바다 사이에 난 길을 발견했어요!

**“보아라! 저 길을 통해 이스라엘 종들이  
빠져나갔다!  
우리도 전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바다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

**파라오의 명령에, 모든 군대가 바다로 돌진했어요.  
하지만 중간쯤 왔을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백 대의 전차 바퀴들이 갑자기 벗겨져서  
군사들이 움짱달짝 할 수 없게 된거죠!**

**“바다 한 가운데서 이게 웬 날벼락이야...!  
어서 돌아가자 뭔가 불길해!  
이스라엘이고 뭐고, 우리부터 살고 보자구!”**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바다를 건너 모세가  
건너편에서 다시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켰더니  
벽처럼 세워져 있던 바닷물이  
파라오의 군대를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수 많은 이집트 군사들은 바닷물 속에  
그대로 잠기게 되었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말로 정말 지긋지긋한 이집트로부터  
파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 분께 감사드렸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오자 모든 여인들이  
따라 나와 함께 춤추며 노래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으로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80년 전 미리암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동생 모세를 살려냈고  
이제 80년이 지나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출애굽 사건의 시작과 끝에 '성경 최초의'  
여성 선지자 미리암이 함께 한 거랍니다